

전남대병원, ICT 스마트병원 탈바꿈... '미래 의료 모델' 제시

의과대학·간호대학 부지에 신축... 다양한 의료 IT 기술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확대... 교육·연구·필수 의료 융복합 서비스

전남대학교병원이 미래형 뉴스마트 병원으로 탈바꿈한다. 원격 중환자실 시스템,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의료 IT 기술이 적용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조기암 진료 시스템과 연구기반의 선진적 재활의료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교육·연구·필수 의료 기능을 융복합해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 연결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전남대병원의 복안이다. 신축 병원은 현재 전남대병원과 전남대 의과대학·간호대학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지어진다.

◇'미래형' 병원·필수 의료 강화=새 병원은 ICT 기반 스마트병원으로의 전환으로 '미래 병원의 모델'을 제시한다. 중환자실 통합상황실을 구축해 원내와 협진 의료기관 중환자실의 생체 징후 및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원격중환자실 시스템', 직원과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 등 스마트병원으로서 다양한 의료 IT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필수 의료에 대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대폭 확장한다.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을 대폭 늘린다. 또 중증·소아·정신응급 등 병상 1인 격리실화를 통한 폐쇄형 응급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전남대병원은 전체 중환자실을 1인 격리실화 및 증설할 계획이며, 분산 배치된 중환자실을 한 건물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조기암 진단을 위한 조기암진료센터를 신설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기재활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대부분의 심뇌혈관 환자들이 전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재활치료 병상은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균 병상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재활 병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진료와 연구를 동시 진행해 환자들의 조기 복귀를 돕는다.

조기재활시스템을 통해 환자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진료와 연구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재활-연구 연계 프로세스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연구·필수 의료 기능 대폭 확대=교육, 연구,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연결적 의료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병원 중심 첨단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인은 물론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개원의, 주민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실제 임상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주요 상황별 시뮬레이션 콘텐츠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첨단의료사업화지원센터를 신설해 연구기능도 확대한다. 기초 및 중개연구, 임상연구 기반 의료기술 혁신 및 메디컬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국립대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보건소'로 이어지는 광주-전남권 전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의 거점병원 역할 수행을 통해 각 영역별로 요구되는 새로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난 대응과 중증환자 관리 기능도 강화해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시 수용량 조정을 위한 커맨드센터로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혁신 기술 기반의 조기진단과 맞춤형 치료, 조기 재활을 포함한 미래의료의



전남대병원 새 병원 투시도.

(전남대병원 제공)

모델을 제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서울 빅5' 병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만큼 새병원을 통해 의

료시스템의 최선화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구현, 지역연결형 의료체계를 꼭 구축해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약취 개선

광주시가 제2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약취 개선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상생협력 실증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8억원 등 11억원을 투입해 제2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환경친화적 약취 제거 설비를 설치한다.

오는 11월까지 설치될 설비는 마이크로 버블을 활용한 세정 방식으로 접촉 효율이 크고 약취 제거

효과가 뛰어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3년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업 추진 평가와 관련해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번덕동 1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루 150t 처리 용량)과 서구 차평동 2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루 300t)을 활용해 하루 평균 384t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유스퀘어 문화관 역사 속으로

▶1면에서 계속

폐관과 맞물려 금호아트홀에서 펼쳐지던 '금호 주니어 콘서트'도 잠정 중단됐다. 금호 주니어 콘서트는 지난 14년동안 매년 개최돼 왔으며 '신인 클래식 전공생이라면 꼭 한 번씩은 거쳐 가는 오디션'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명도가 높았다.

금호주니어콘서트 출신 문윤정 플루티스트는 "지역 신인들이 1시간 정도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트가홀이 폐관된다니 안타깝다"며 "주니어 콘서트와 명맥을 이어 나갈 대안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가변형 전시공간인 '금호갤러리'는 현재 추가 전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 조만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160명에 달하는 대형 전시관으로 그동안 신인 전시 및 청소년·어린이 교육전시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문화관 폐관과 맞물려 갤러리가 사라지게 되면 지역민과 예술인들로서는 소중한 전시 공간을 잃는 셈이다.

이곳에서 개최된 단체전에 참여했던 정혜영 작가

는 "금호갤러리는 충고, 넓이, 접근성에서 우수한 공연장인데 폐관된다니 소식이 안타깝게 아아익스, 스크린X 등 특별관을 보유한 CGV광주타워미널점도 사라질 예정이다. 방문객 규모와 계약 현황,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올해까지는 운영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은 불투명하다.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 그동안 '프리미엄 다면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극대화된 영상미를 즐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팝업 매버릭'이나 '아바타' 같은 작품을 보기 위해 타 지역 원정을 나서는 영화 애호가들도 있을 수 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향후 신세계가 추진하는 '아트 앤 컬처' 사업 모토에 맞게 내부에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이 들어서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유스퀘어문화관 측은 "향후 계획 등은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문화관 폐업으로 금호아트홀, 영화관, 전시관 등 지역 예술 공간들이 사라지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총리, 내주 초 방한...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과 회동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참석

팜 민 쩐 베트남 총리가 다음달 초 방한해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팜 민 쩐 총리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조 부회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조현상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 300여명이 참석한다.

베트남 측에서는 팜 민 쩐 총리를 비롯해 기획투자부장관, 외교부장관, 기업사절단 등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포럼에서 팜 민 쩐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포럼에서는 다양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베트남 금융 협력

방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과 별개로 팜 민 쩐 총리가 이번 방한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고 삼성 사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그룹과는 최고경영자(CEO)급과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부터 7월 초까지 미국 출장 중이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의 세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다. /연합뉴스

호남권 건축물 내진율 고작 10%대... 전국 평균 못미쳐

광주 18.9%·전남 17.2% ...정준호 의원, 지방 중소도시 대비책 필요

최근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호남권 내진율이 10%대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역사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진 발생 시 큰 피해를 막으려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내진율은 16.9%였다. 서울·경기·

인천 수도권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22.6%인 반면 지방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16.19%에 그쳤다. 지방 중소도시가 수도권보다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호남권역은 광주 18.9%, 전남 11.0%, 전북 14.0%로 평균 14.6%를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부안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부서지는 등 시설 피해는 총 937건이었고 그중 대부분인 783건이 부안에서 발생했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구분했을 때 지역별 내진율 격차는 더 심해졌다. 공공 건축물 내진율은 세종(40.9%), 서울

(20.5%) 순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이번 지진이 발생한 전북(20.3%), 충남(19.7%), 부산(18.6%), 전남(17.2%) 등 지역은 낮은 내진율을 기록했다.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는 23.7%p였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 역시 경기(26.0%), 세종(23.7%) 등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0.8%), 경북(11.9%), 부산(12.3%), 경남(12.5%), 강원(13.0%), 전북(13.8%) 등 지역이었다.

민간 건축물도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가 15.2%p를 보이며 수도권 대비 지방 건축물의 낮은 내진율과 열악한 지진 대비 현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혜나 기자 khn@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3차)

강진공예문화예술촌협동조합은 2024년 4월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4년 5월 7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강진공예문화예술촌협동조합
전라남도 강진읍 금동2길 24.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청산인 황보복례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6월 24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늘푸른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암로33번길 22, 101동 1002호
(수암동, 수완1차우미린아파트)
청산인 홍영숙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지원(740216-1XXXXXX)
· 최후주수: 순천시 상남앞길 23(남정동)
· 등록기준지: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피상속인 망 박지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 정법원 순천지원 2024년단225호로 신청하여 2024년 6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25일
· 상속인: 박종익(430420-1XXXXXX)
순천시 상사면 용암길 25
· 신고기간: 2024. 6. 25. ~ 2024. 9. 4.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종익의 주소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6월 17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25일
스틸마신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98, 다동 104동(화치동)
청산인 정상욱

光州日報 지역안내

· 동 경 266-1920 · 동 문 266-1960 · 북경주 525-3761
· 신 안 222-6171 · 영 신 571-7658 · 오 지 266-7601
· 흥 흥 433-1503

· 남 경 673-6636 · 동 영 222-9054 · 동 부 225-6001
· 송 영 222-9654 · 송 영 222-6171

· 남 부 673-6636 · 백 문 651-1833 · 봉 신 673-6636
· 송 흥 675-6605 · 영 민 671-7276

· 광 원 382-5788 · 상 목 372-2352 · 서광주 309-1625
· 은 신 376-7153 · 지 흥 376-6311 · 송 통 603-0311
· 화 흥 366-1625

· 온 남 952-1687 · 월 국 959-1020 · 함 원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임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읽는 길 72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